



김기태 감독

# “명가재건”... KIA, 지옥의 캠프 시작된다

### 내일 출국...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괌 재활 이원화, 2군은 대만행

2015시즌을 위한 ‘호랑이 군단’의 대규모 캠프가 시작된다.

김기태 감독을 새로운 수장으로 한 KIA 타이거즈가 본격적인 담금질에 나선다. 오키나와와 괌 그리고 대만이 2015시즌을 위한 결실의 땅이 된다.

먼저 스프링캠프 본진이 16일 일본 오키나와(킨 구장)에 마련된다. 3월4일까지 진행될 캠프에는 김기태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 11명과 선수 46명 57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캠프 초반 체력 및 기술·전술훈련을 갖는 이들은 2월 중순부터 연습경기를 갖고 올 시즌에 대한 윤곽을 그릴 예정이다. 2월15일 야쿠르트전을 시작으로 라쿠텐(16일), 일본벤투(17일), 요코하마(19

일), 라쿠텐(20일), 한화(22일), 히로시마(24일), 히로시마(26일), 넥센(27일)과의 연습경기가 진행된다.

따뜻한 괌에도 전진기지가 마련된다. 투수 서재웅·김병현·김태영·곽정철·한기주·차명진과 외야수 나지완 등 7명이 괌에 캠프를 차린다. 이들은 17일부터 괌 파세오 구장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소화한 뒤, 오키나와 캠프로 합류할 예정이다.

2월1일부터는 잔류 선수들이 대만으로 이동해 육성캠프를 치를 예정이다. 부상 등으로 캠프에 참가하지 못한 이들도 있다. 앞서 12일 진행된 체력 테스트에서 중도 포기를 했던 투수 김진우는 캠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기대를 모았던 ‘루키’ 우완 문경찬은 얼마 전 교

통사고로 안면 골절상을 당하면서 명단에서 제외됐다. 사이드암 박준표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국내에 잔류하게 됐다.

◇2015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명단(57명)

▲코칭스태프(11명) : 김기태, 조계현, 박홍식, 김태홍, 김민호, 홍우태, 김종국, 이대진, 홍세완, 나가무라, 박종하 ▲투수(20명) 최영필, 양현종, 임준혁, 박성호, 임준섭, 심동섭, 임기준, 한승혁, 고영창, 홍건희, 전우엽, 박상욱, 김지훈, 신창호, 최현정, 협배, 스티븐, 박정수(신인), 김명찬(신인), 이준영(신인) ▲포수(4명) : 차일목, 이성우, 백용환, 이흥구 ▲내야수(14명) : 이범호, 김민우, 최희섭, 박기남, 강한울, 박찬호, 최용규, 고영우, 최병연, 이인행, 황수현, 윤원주, 황대인(신인), 브렛필 ▲외야수(8명) : 김원섭, 김주찬, 신종길, 김다연, 이호신, 이종환, 서용주, 이정현(신인)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IA, 캠프 참관단 30명 모집

KIA 타이거즈가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 참관단을 모집한다.

이번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팬 투어는 2월14일부터 17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전지훈련을 하는 선수단을 격려하고 연습경기를 관람하는 여행상품이다. 참가비는 1백25만원, 아동(2003년 2월생 이후)은 1백13만원으로 야쿠르트 스왈로스, 라쿠텐 이글스와의 연습경기 관람과 오키나와 관광, 선수단과의 식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참관단 모집은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대행사(e모두투어 1544-9885)를 통해 하면된다. 팬 투어는 참관단 신청 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에만 진행된다. (문의 마케팅팀 070-7686-8044)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도장 찍으러 갑니다”

### 강정호, 피츠버그와 계약 위해 美 출국

포스팅시스템을 거쳐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어츠와 입단 협상을 진행 중인 강타자 강정호(28·넥센)가 계약을 마무리짓기 위해 ‘메이저리거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떠났다.

강정호는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피츠버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번 방문은 피츠버그 구단의 초청에 의한 것으로, 강정호는 현지에서 구단 관계자와 직접 만나고 피츠버그의 홈구장을 둘러보는 한편 15~16일 이틀간 매디컬체크에 응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강정호는 피츠버그와 입단 협상을 마무리지을 것이 확실시된다.

앞서 피츠버그는 500만2015달러(약 55억원)의 포스팅 금액을 적어내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한 달간 강정호와 독점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권리를 얻었다.

계약 마감 시한의 끝까지 줄다리기를 거듭하던 과거 국내 선수들과 달리, 협상이 진행되면서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는 보도가 현지에서 나왔다.

출국 전날인 13일에는 현지 스포츠전문 매체인 ESPN에서 양측이 4년간 1600만 달러(약 173억 5200만 원)에 계약하는 데 합의했다며 신체검사만 통과하면 곧 계약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말끔한 양복 차림으로 공항에 등장한 강정호는 이런 보도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 이야기가 나와서 나도 당황스러웠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미소를 보였다.

강정호는 원하는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돈보다는 야구 외적으로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면서 “영어도 가서 배우 선수들과 소통하고 잘 적응 하느냐에 따라 성적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번 방문에서 계약이 성사되면, 강정호는 미국에 계속 체류하며 시즌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北, 떨어진 8강

14일 오후 호주 멜버른의 레탱클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2차전 북한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에서 북한은 사우디아라비아에 1-4로 대패,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 몰렸다. 후반 7분과 후반 9분 연속골을 터뜨린 사우디의 모하메드 알 살라위가 북한의 전광익을 뛰어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민, 시즌 시작은 마이너리그

### 볼티모어 ML 캠프 초청 못받아

메이저리그 진입에 제도전하는 윤석민(29·볼티모어 오리올스)이 마이너리그 캠프에서 전지훈련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지역지 볼티모어선은 14일(이하 한국시간) “백 쇼월터 감독이 ‘윤석민을 메이저리그 캠프에 초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쇼월터 감독은 “윤석민이 지난해보다는 좋은 공을 던질 것이다. 그렇게 기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메이저리그 캠프 명단에서는 제외했다.

윤석민은 현재 볼티모어 40인 로스터에 제외된 상태로 볼티모어 산하 트리플A 노포크 타이즈 소속이다. 하지만 스프링캠프에서는 다른 유망주와 함께 메이저리그 캠프에 합류할 전망이다. 그러나 쇼월터 감독은 플로리다주 새라소

타에서 열린 미니캠프에서 ‘윤석민의 마이너리그 캠프행’을 공언했다.

볼티모어선은 “윤석민은 575만 달러에 3년 계약(2014~2016년)을 한 선수다. 올해 기본 연봉만 175만 달러를 받고, 내년에는 240만 달러를 받는다”라고 떠올렸다. 윤석민의 메이저리그 캠프 명단 제외가 의외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쇼월터 감독은 지난해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서지 못한 채 트리플A에서만 23경기에 등판해 4승 8패 평균자책점 5.74로 시즌을 마친 윤석민을 일단 마이너리그 캠프로 보냈다.

윤석민은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내 ‘신분’이 메이저리그 진입을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실력으로 경쟁자들을 밀어내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고 털어놨다.

/연합뉴스

### 조한승에 불계승... 3승 1패

국내 바둑랭킹 1위 박정환 9단이 생애 처음 국수(國手) 타이틀을 차지했다.

박정환은 14일 서울 마장로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58기 국수전 도전5번기 제4국에서 조한승 9단에게 173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다. 이로써 종합전적 3승1패를 기록한 박 9단은 이름 그대로 ‘국수’ 반열에 올랐다.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수전은 본격적인 중 유일하게 도전기로 우승자를 가린다.

1956년 창설된 국수전은 첫 대회에서 고(故) 조남철 9단이 우승한 이후 김인, 조훈현, 서봉수, 이창호, 이세돌 등 당대 최고수 12명만이 타이틀을 차지했다. 박정환은 이날 승리로 통산 13번째 우승자로 기록됐다.



최근 14개월 연속 국내 랭킹 1위를 지키는 박정환은 명실공히 최고수임을 재확인했다.

박 9단은 “국내기전 중 가장 우승하고 싶었던 국수전 정상에 올라 기쁘다”면서 “초반에는 만만

치 않은 바둑이었지만 중반부터 조한승 9단의 실수가 나왔고 결정적으로 후반 수상전에서 백돌을 잡아 승리를 예감했다”고 말했다. 천원(天元) 타이틀을 보유 중인 박 9단은 올해 첫 타이틀전인 국수전에서 우승하며 국내기전 2관왕이 됐다. 국수전 우승 상금은 4500만원이다. /연합뉴스